

술먹는 배우자를 조심하라

최 차 혜 · 산부인과 원장, 전문의

부 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술을 가까이 하는 지나친 술꾼이라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회적인 통념이 배우자의 웬만한 음주정도는 별로 문제삼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려면 남자가 술은 좀 먹어야지' 하는 관대한 음주정서가 지배적이어서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의 음주를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혼 전 남자친구나 애인이 지나친 음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배우자로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가 점차 이기적이고 개방화 되어가면서, 폭주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런 이유없이 혹은 주위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즐기는 습관성 음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여성들에 비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나 TV 뉴스프로에 심심찮게 화제거리를 제공하는 현실이다 보니 음주문제는 이제 남·녀는 물론 결혼을 앞둔 사람이거나 결혼한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알콜리즘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 의하면 부모중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친 술꾼이라면 자녀들에게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자녀가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성격발달상의 장애이며, 두 번째로 부모로 인해 생기게 되는 각종 임상적 질병들로 태아성 알코올증후군, 성인기의 알코올중독, 과잉행동 장애, 성인기의 우울증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 태아성 알코올중독이나 과음을 하는 산



모로부터 태어나는 아기에게 생기는 선천성 장애로, 정신박약, 운동능력 저하,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외형상으로도 머리가 작고 두 눈이 외상방으로 찢어지고 콧날이 너무 납작하고 인중이 깊어지는 등 독특한 선천성 소뇌중후군을 보이는 증세로 알코올중독 여성 중 26~33%가 이같은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따라서 임신할 계획이 있거나 특히 임신 중의 산모라면 자신의 몸 뿐만이 아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특별한 몸가짐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 알코올중독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첫째 질병은 과잉행동 장애이다. 이 질환은 생후 3세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질환으로 또래의 보통 아이들과는 달리 집중을 못하고 설쳐대며 충동적이 된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부리고 과격해져서 심할 때는 자신이 큰 상처를 입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질병으로는 또래의 아이들끼리 모여 처음으로 집단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데, 가장 보편적인 예로 학교에 들어가서 숙제를 해낼 수 없고 수업시간 중에도 계속 판전을 부러 학습 지진아가 되는 것이다.

'혹시 내 아이도 그럼?' 하고 걱정을 할 주

부가 있을지도 모르나 장난기가 발동해서, 혹은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판전을 부리는 아이와는 사뭇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숙제의 개념조차 이해 못하고 생각의 발달 자체가 부진해 학습 지진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질병으로는 자녀들이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술을 과하게 마시는 부모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보고, 생각하고, 자란 결과 아이가 커서도 술에 대한 해악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아들 쪽에서 알코올중독이 될 확률이 더 높아서 약 48%가 된다고 한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알코올중독이 될 확률은 약 82%라고 한다.

넷째 질병은 알코올중독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기에 맞게 되는 우울증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진성 우울증으로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자며 기운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등 정신과적 우울증을 이야기한다.

이같은 증상은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서 더 많이 생기는데 이는 유전적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알코올중독자 부모의 슬하에서 겪었던 심리적, 환경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7]

국내보건의료정보

노인들 건강문제 점검, 우울증 유발

IME 이후 우리 나라 노인인구 10명중 3~4명이 옹돈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는 '질병없는 생활' 즉, 자신의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과 정인교교수와 광명 고려신경정신과 박인옥원장이 공동으로 최근 두병원 정신과를 찾은 우울증 노인환자와 무료복지병원 노인, 파고다 공원을 찾은 노인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의 우울성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과 질병, 죽음 등 신체적 건강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른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인들은 자녀가 대우를 안하거나 무시할 때(자녀와 갈등), 혼자있거나 소외감이 들 때, 자녀 걱정, 배우자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배우자와 갈등 때문에 우울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노인 가운데 60~70%만이

옹돈을 갖고 다닌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지니고 있는 옹돈은 평균 15~1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옹돈의 쓰임새는 약값과 병원비가 25.5%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22%, 술·담배 등 기호식품 구입 12.2%, 외식 및 교통비가 각각 11.6%와 7.4%를 차지했다. 현재 가장 불편한 사항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48.8%), 경제적 문제(11%), 자녀와 갈등(17.1%), 배우자의 건강문제

(13.2%), 배우자와 갈등(11.3%), 그리고 직업문제와 과거회상을 꼽았다. 정인교교수는 '우리 나라 노인은 고부갈등, 자식문제 등으로 인한 우울증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넘어간 사회에서 비롯된 '자식과 나는 별개',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신념의 표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간보사>